

제5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1. 신성장 거점 육성
2. 지역맞춤형 개발사업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확충
4. 열린 토지행정 구현



제5절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

1. 신성장 거점 육성

1-1.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가.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시즌 2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협력하여 조성하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로 개발면적은 전북 혁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 24.)상 18개 기관이었으나, 저작권심의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저작권위원회로 통합(2009. 7월)된 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부소속기관 3개, 공기업 1개, 준정부기관 9개, 기타 공공기관 3개 등 총 16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한편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여수시로 개별 이전했다.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2017년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말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게 되면 16개 공공기관 이전은 최종 마무리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정책 방향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한다. 41만5000㎡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연관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캠퍼스 등을 유치해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동신대가 혁신도시에 대학현장캠퍼스를 2018년 8월에 오픈하고, 목포대가 327억원을 들여 혁신산단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한다. 신에너지 기술개발·실증사업을 위해 800억원이 투입될 에너지기술 실증센터는 2020년까지 완공되고, 242억원을 들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은 2018년 8월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전기·에너지, 신재생·스마트산업 등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플랫폼 구축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8년 6월까지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혁신도시발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지역 성장거점인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밸리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

구분	정부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관수	3개	1개	9개	3개
기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전파연구원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우정사업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KDN · 한전KPS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진부서 ○ 혁신도시지원단장 윤영주, 행정지원팀장 박권열, 담당자 서종국

나.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우리 도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정착을 위해 17,95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13,39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했다.

혁신도시 내 자족형 교육거점조성을 위해 유치원 7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등 17개교가 설립될 계획이며, 이 중 11개교는 개교하여 입학 또는 전학하게 되는 이전기관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했다. 또한, 어린이집 54개소 중 43개소가 건립되어 운영 중이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진입도로는 총 4개 노선 7.89km이며, 사업비 2,204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노선 중 1개 노선 5.39km(나주역~혁신도시)은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개통했으며, 시행사 구간인 2개 노선 1.52km(서측, 동측)도 2015년에 완공하여 총 3개 노선을 개통했다. 나머지 1개 노선 0.98km(북측~국도 1호선)는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혁신도시진입도로는 호남광역권 내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킴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성장하도록 주도할 것이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련 주요 진입도로 노선 위치도 】

구분	노 선 명	연장(km)	개통(예정)
가	나주역~혁신도시 서측	5.39	개통
나	사업지 서측(신천IC)~고동리	0.98	개통
다	사업지 북측~국도1호선	0.98	2019년 1월 예정
라	사업지 동측~국지도55호선	0.54	개통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주요 악취 원인으로 주목받은 호혜원의 축산

폐업을 2015년도에 완료함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혁신도시 인근 축사에 대해서도 미생물 발효제 투입 등 다양한 악취 저감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혁신도시지원단장 윤영주, 행정지원팀장 박권열, 담당자 서종국, 김경근
시설지원팀장 최연호, 담당자 임현미

다.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빛가람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기업이 필요한 면적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가 대규모 필지형태로 조성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의 소필지화를 추진하여 입주희망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총 84개 블록, 415천㎡(전체 면적의 5.6%)로 조성했으며,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에너지클러스터, 농생명클러스터, 정보통신클러스터, 문화예술클러스터로 구성했다

투자의향 기업 및 이전완료 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7년말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80%인 64필지, 332천㎡가 분양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에너지클러스터, 농생명클러스터, 정보통신클러스터, 문화예술클러스터 등 4개 기능군 간 유기적인 배치를 통해 미래 신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

<p>에너지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전시시설, 창업인큐베이터 등이 구비된 전문화된 연구기술단지의 개발 및 녹색전력 IT기술의 상용화 기반 구축(Smart-Grid 시범도시 등) ● 광주의 광·LED산업 및 전남의 태양광·해양풍력 발전사업 등 광역경제권 에너지사업과 연계 혁신클러스터 구축
<p>농생명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나주-화순을 중심으로 한 생물산업의 연구개발 및 자원화 기관과 연계 하여 광역클러스터 구축 ● 농식품가공산업육성과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바이오 의료산업 등 농림 바이오산업 전반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p>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지역내 창업기반 구축 및 한전KDN 등과 연계 에너지 관련 정보통신산업체 육성 ● 국내·외 관련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킹 체제 구축과 특화분야 연구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소 분원 유치 추진
<p>문화예술산업 클러스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 및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 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수도권 문화콘텐츠 관련업체 이전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임대 사무실 제공, 고가시설장비 공동이용) 마련

추진부서 ○ 혁신도시지원단장 윤영주, 시설지원팀장 최연호, 담당자 임현미

라. 빛가람혁신도시 상생협력 지원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과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혁신도시 발전을 논의할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2014년 12월 24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와 산하 실무위원회에서는 교육·교통·의료·문화·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광주·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지역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5일 지역발전 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지역발전분과위원회는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4개 전문분과위와 기획총괄위로 구성했고, 총 94명의 전문가가 수시로 만나 지역상생발전방안을 연구했다.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따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지역 소재 대학 총장 등을 추가 위촉하는 등 확대 개편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49회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3,048여 명을 초청하여 천연염색문화 체험,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명승·유적지 답사,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러한 탐방행사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조속한 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우리지역에서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빛가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빛가람 페스티벌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노력이 반영된 행사로써,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융화의 자리가 됐다.

추진부서 ● 혁신도시지원단장 윤영주, 행정지원팀장 박권열, 담당자 서종국, 김경곤

1-2.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여건 조성

1)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 배경

전남의 서남해안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명품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전남 서남해안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일의 목표로 삼고 시작했다.

전남도는 미래 성장거점 개발에 대해 다방면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미국 저드(Jerde)사를 통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했다. 'J-Projec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이때 확정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전경련의 기업도시 개발 제안을 정부도 수용했다. 2004년 12월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 8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 지정을 받았다.

최초 개발구상과 사업제안서상 사업면적은 약 99.2km²(3천만평) 규모였다. 영암군과 해남군에 걸쳐있는 영암호·금호호 내부 간척지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부에서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범사업은 1천만평 규모로 축소해 추진하되 초과면적은 단계별로 개발하자는 방안으로 나갔다.

정부는 2012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낮은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09년 6월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한 부동지구 개발계획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2012년 4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2013년 3월 '기각' 판정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는 2013년 7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신청 후 시간이 장기간 소요됐고 정부의 개발사업 지원

의지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 포기’ 결정을 했다. 결국, 사업면적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던 33.9km²(1,026만평) 규모로 확정됐다.

2) 개발 예정지내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양도·양수

기업도시 개발 예정부지는 영산강Ⅲ-1지구(영암호 인근), Ⅲ-2지구(금호호 인근)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곳으로 매립준공을 하기 전에는 공유수면매립지(간척지) 상태였다. 지구별 사업시행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매립준공 전 간척지를 확보하고, 매립준공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고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양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량농지로도 조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매립목적에 침해받았으므로 조성원가가 아닌 도시개발계획으로 승인·고시된 상태의 농지로 평가하여 양도하고자 했다.

삼포지구는 2010년 6월에 F1경주장 부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를 진행했다. 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이견은 있었으나, F1경주장의 준공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 평가하고, 2011년 9월까지 양도·양수를 완료했다.

구성지구는 2010년 8월에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가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 7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당초의 평가결과대로 양도·양수 하라는 조정을 했고, 이로써 감정평가액을 확정하는데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2012년 11월에 양도·양수가 완료됐다.

삼호지구는 2010년 7월에 농어촌공사와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를 개시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대한 당사자(SPC:농어촌공사)간 이견으로 기간 내 평가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2011년 8월 평가계약 해지와 함께 평가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농어촌공사와 평가 기준에 대한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평가 기준이 명확해진 2013년 12월에서야 감정평가를 재개할 수 있었다.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 양도·양수는 2014년 3월에야 완료됐다.

3)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구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84%가 공유수면매립지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했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2013년 6월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했다. 법률 개정 전에는 적용기준에 대한 원칙이 불명확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의 현실이용 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확정했다.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 협약상의 잔대금 이행보증을 위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15%이상의 보증수수료 및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필요)과 잔대금 적용이자 5% 고정금리 적용도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초기 개발사업 활성화에 큰 장애 요인이 됐다.

이에 중앙부처에 정책지원을 요청했고 2013년 7월과 9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2차, 3차)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을 20% 계약금과 질권설정으로 대신하고, 잔대금에 대한 5%의 고정금리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인 2.6%대의 변동

금리로 적용토록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와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재정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준공 시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등)와 매립권리 양도·양수 비용을 합한 금액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추가 매입이 필요했다. 그러나 기업도시 개발부지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인근 토지가격으로 양도·양수했기 때문에 총사업비 정산 시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의 근간을 훼손하는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BH,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건의 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슬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성 유무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오면 제도개선을 추진기로 합의했다.

2014년 10월 한국감정원의 매립지 총사업비 정산제 적용에 따른 개발이익 재산정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결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2015년 6월 개정됐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공유수면매립지는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 현황으로 평가’하는 총사업비 정산 특례를 적용하고,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된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유지 수용재결 신청요건이 문제가 됐다.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1년 연장가능)로 규정되어 있지만, 삼호지구와 구성지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권리 양도·양수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신청 기간이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각각 만료됐다. 이에 사유지 수용재결 신청기한 연장을 현실에 맞게 건의하게 됐다. 2016년 12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했다가, 이후 1년을 더 연장해서 2017년 12월말로 재결신청 기한을 정하도록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 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도시 개발부지가 공유수면매립지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과 투자유치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조기 토지화를 위해 공유수면 준공 시 기업도시 준공과 중복되는 공정은 생략하고 최소 공정만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반영했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기획총괄팀장 이주현, 담당자 이철행

나. 솔라시도 개발사업 지구별 추진계획

1) 구성지구

2006년 6월 1일 자본금 60억원으로 구성지구 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설립됐다. 이후 주주간 추가 출자 협의로 보성건설(주) 549억원, (주)한양 151억원, 광주은행 9억원, 전남개발공사 90억원, 한국관광공사 11억원, 전라남도 90억원 등 총 자본금 900억원에 대한 출자가 마무리됐다.

구성지구 개발방향은 글로벌 스마트 휴양관광도시로 명품 관광레저도시 조성에 더하여 98M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저장시설 ESS(250MW)을 연계한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체계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고, 43만평의 스마트팜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용 신선 농작물을 재배·가공·유통·판매하는 미래 농촌마을을 조성하며, 21C형 교통체계를 대비한 자율주행 인프라 및 공유교통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스마트시티와 관광레저를 결합한 국내 최초 미래형 관광콘텐츠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구성지구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1월 13일 승인됐고, 2010년 10월 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 1개월이 지난 2011

년 11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구성지구 사업부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척지에 대한 양도·양수 감정평가액이 민사조정을 통하여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과 12월 27일 최종 고시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2013년 2월 1단계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구역 내 도로 33.5km 개설, 성토 675만^m 등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기준 공정률은 18.6%이다.

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공유수면 토지화가 2017년 8월 31일 완료되어 482만평의 토지를 신규 취득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고, 단순한 관광레저도시를 넘어 스마트시티 컨셉을 반영한 글로벌 스마트 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 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 8월까지 기존 골프장 7개를 2개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첨단농업,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추진한다.

2018년 하반기 정부의 지자체 제안방식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을 위하여 2018년 3월 도, 해남군, SPC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2018년 10월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단지 내 주택용지를 최초로 분양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하는 등 개발사업이 첫 열매를 맺게 된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개발지원팀장 이경종, 담당자 권상민

2) 상호지구

2006년 9월 17일 14억원의 자본금으로 상호지구 SPC인 서남해안 레저(주)가 설립됐다. 당초 대주주는 금호산업(주)에서 2009년 7월 1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로 변경됐으며, 이후 주주 간 협의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주) 283억원, 삼환기업(주) 2억원, 한국관광공사 90억원, 전라남도 75억원 등 총 자본금 450억원에 대한 출자를 마무리했다.

상호지구 개발방향은 골프 테마 관광레저도시로 63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과 페어웨이 빌리지, 마리나 빌리지를 중심으로 한 정주형 자족도시를 개발한다.

상호지구 개발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0월 8일 승인됐고, 2010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5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마지막으로 중앙 15개 부처 협의를 완료했으나 농어촌공사와 간척지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으로 2011년 8월에 잠정 중단됐다.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과 간척지 양도·양수 이행담보 개선 등 걸림돌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2013년 12월 30일 농어촌공사와 SPC간 간척지 양도·양수협약이 체결됐다.

개발사업의 가장 큰 난제였던 공유수면 토지화의 첫 단추인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018년 2월 완료됐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신청을 하는 등 토지화를 위한 마무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5월경 관련 부처의 준공 절차가 마무리 되고 255만 평의 토지의 지적등록,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면 공유수면 토지화가 마무리된다.

2014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상호지구는 2014년 6월 서측 내부 진입도로 1.75km 공사 착수, 7월 골

프장 27홀, 11월 골프장 18홀 공사를 착수했고, 2017년 골프장 2개소(45홀) 토공사 및 조형공사를 완료했다.

삼호지구는 1단계 사업인 골프장 45홀과 내부 진입도로를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관련 첫 시설물 준공과 수익사업 개시라는 첫 열매를 맺게 된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개발지원팀장 이경종, 담당자 권상민

3) 삼포지구

삼포지구 SPC인 KAVO(주)는 MBH가 자본금 75억원을 출자하여 2006년 9월 13일 설립했다. 이후 2007년 6월 22일 MBH가 27억 원을, 2008년 2월 2일 전남개발공사가 40억 원을 우선 납입했고, 2008년 7월 26일 전라남도가 173억원, SK건설(주) 148억원, 전남개발공사 50억원, 신한은행 40억원, 농협중앙회 40억원, 광주은행 7억 원을 납입함으로써 총 6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했다. 2010년 10월 25일 MBH 지분 102억 원을 SK건설(주)가 인수한 이후 2012년 5월 18일 SK건설(주) 지분 250억원 중 36억 원을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함으로써 자본금 지분구조가 일단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계인의 스피드 축제인 「F1 Korean Grand Prix」가 열리는 삼포지구 개발방향은 자동차 테마 관광레저도시로 1단계 사업구역에는 F1경주장, 카트장, 자동차 튜닝밸리 등이 조성되고 2단계 사업구역에는 테마파크, 호텔, 주거·상업시설 등 배후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포지구 개발의 첫걸음은 F1경주장 건설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2007년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암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득하고 경주장 건설

의 근거법을 마련하면서부터이다. 2009년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했다.

협의 과정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개발계획 승인신청 관련 최소면적 기준(660만㎡)에 대한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심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및 법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9월 29일 동법시행령 부칙에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기준의 100분의 50을 개발구역 면적기준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2009년 3월 4일 삼포지구 개발구역 지정 제안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으나, 규정상 개발구역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0년 2월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2010년 4월 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2010년 10월 4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인 2010년 10월 21일에서야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단계 사업구역 내 F1경주장이 건설됐고, 2011년말 전남개발공사 내에 KIC (Korea International Circuit) 사업단을 별도 기구로 발족하여 F1경주장 관리 운영과 삼포지구 잔여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등 기업도시 조성 및 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삼포지구는 신규 개발사업자를 발굴 및 유치하여 F1경주장이 조성된 1단계 지역을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개발지원팀장 이경중, 담당자 문세권

다. 솔라시도 개발사업 기반 조성

1) 안정적인 지가 관리 및 불법행위 사전차단

안정적인 지가 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2004년 8월 11일 1차로 해남군 산이면 전 지역과 화원면 청룡·금평·영호·성산리 지역 105.86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업예정 인근지역인 해남군 해남읍, 화산·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면 일원 457.65km²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면 189.1km²까지 2차로 확대 지정하여 총 면적 708.77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거의 없고, 지가 또한 안정적으로 조사되어 도에서는 10회에 걸쳐 해제를 건의했다.

2009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지정한 영암, 해남군 일원 646.75km²를 해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중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해남군 11개 법정리 62.02km²를 해제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부동리,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금호리 6개 법정리에 걸쳐 지정됐던 43.84km²에 대해서도 2011년 8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또한, 기업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수목식재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해남군과 영암군에서는 1차로 2005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간 기업도

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으나, 개발 계획 미승인 등으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년간 2차에 걸쳐 연장 고시하여 월 1회 이상 도, 해남군, 영암군, 시행사가 합동으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위해 주택 및 축사 등의 수선 행위와 소형관정 개발 등 영농경작행위 등은 해당 군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일부 허용하다가 2009년 10월 8일 삼호지구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월 13일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 후에 개발행위 제한 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2) 사유지 보상 및 주민 생계안정대책 추진

솔라시도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및 이주민 현황을 보면 토지 필지수는 2,988필지, 면적은 33,904천㎡로 국·공유지 1.47%, 간척지 83.96%, 사유지 14.57%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은 86세대, 158명이다.

구성지구 사업시행자는 140만평 사유지(1,160명, 2,430필지)의 보상을 위해 2016년 사유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2017년 3월 토지관 계자에게 개별통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사유지 협의 보상을 실시했다. 미협의 보상 사유지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제결을 신청했으며, 2018년 하반기 재결심의·공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호지구는 2015년에 국·공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2018년 사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협의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양보하고, 이주 또는 이직을 하는 영암·해남지역의 주민생계안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재)전남발전연구원과 2011년 11월 18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민생계안정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용역은 가경작 주민현황, 농기계 보유현황 등 현황조사 분석, 용역관련 지역 여론 주도층 의견청취 및 여론조사(취업희망 등), 기업도시 개발과정 및 준공 후 주민생계 수요조사, 지역주민 직업훈련과 일자리창출 수요조사, 이주대상자 주거 수요조사, 개발이익분에 대한 지역민의 지역사회 환원 의견수렴 등 2012년 6월 30일까지 수행됐다.

우리 도는 시행사에서 이주자 택지 위치·조성규모 등 이주민 이주 대책과 간척지 가경작민 등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생활대책 수립 시에 위 연구결과를 활용토록 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개발지원팀장 이경중, 담당자 권상민

3) 기업도시 진입도로개설 추진

정주 인구 38천명(15천세대)과 연간 500만 여명의 관광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추가 개설이 필요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개설된 F1 진입도로를 기업도시 진입도로로 간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사업 타당성과 진입도로개설 필요성을 피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2011년 11월 8일 국회 상임위(문광위)에서 기본조사 용역비 30억원을 확보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됐다.

우리 도는 2011년 11월에 2012년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2012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DI에 의뢰했으며 2012년 10월에 B/C 1.08이 인정되어 총사업비 2,756억원 중 2013년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여 2013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2013년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2014년에 마무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국고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2014년에는 최종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12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를 하고 2015년 6월에 기본설계를 심의하여 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2015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11월에 해남구간 1공구는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영암구간 2공구는 금호산업(주)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하여 12월 9일 공사를 착공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목포·광양간고속도로 및 국도 2호선 서호 IC에서 솔라시도 지구 내 지방도 806호선을 잇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10.83km, 4차로이며, 이중 영암호황단교(2.2km)는 아치교의 특색있는 디자인과 교각 부분 전망대 설치로 교량 자체가 관광명소화 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2,751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투입되며, 2018년 3월 기준 공정률은 41%이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개발지원팀장 이경중, 담당자 유홍재, 장호훈

라. 기업도시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추진

1) 기업도시브랜드 개발

세계수준의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 3월 사업시행자(SPC)와 협의를 거쳐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다.

2011년 4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역동성, 활력, 조화, 즐거움, 풍요’를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브랜드명을 발굴한 결과 브랜드명을 “솔라시도(SolaSeaDo)”로 확정했다. 슬로건은 ‘태양·바다·호수의 삼중주’와 ‘월드클래스 휴양·레저 도시’로 결정했다. 2012년 3월까지 로고를 포함한 기본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태양과 바다를 함께 즐기는 복합 휴양 관광 도시로서 삶의 즐거운 리듬과 에너지, 젊음의 경쾌한 템포 등을 연상시키는 도시명으로 개발되었다.

2) 솔라시도 개발사업 홍보

기업도시 진입도로 착공, 지구별 선도사업 추진, 튜닝밸리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잠재투자자 및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언론을 통한 방송광고, 배너광고,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의 전광판 표출광고 등을 활용하여 솔라시도를 홍보했다.

국내 주요 부동산 박람회에도 연 2회 이상 참여하여 전용부스를 설치하고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수도권 역시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솔라시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기획총괄팀장 이주현, 담당자 오현미

마.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1)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레저행태의 변화 등으로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모터스포츠 및 고성능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국제공인 1등급 F1경주장과 연계한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사업인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부품을 국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도록 타이어, 휠, 제동 등 핵심부품 기술개발(5종), 장비구축(8종), 평가법 개발(3종), 연구센터(2동) 건립 등을 추진했다.

도는 2015년 F1경주장 인근에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 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연구지원동·평가장비동을 준공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에 해외에서 이뤄지던 자동차 부품의 극한 성능시험·평가를 F1 서킷을 활용한 시험·평가로 대체하는 등 국내 기업의 비용절감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튜닝밸리조성팀장 김창오, 담당자 김태이, 김병만

2)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자동차 선진국들은 F1경주장 인근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튜닝산업이 핵심이다. 전남도는 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국제공인 1등급 F1서킷을 활용한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418억원을 투입하여, 튜닝부품 시험장비 구축(19종), 평가법 개발(8종), 기업지원·평가시설(2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튜닝부품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시험 및 평가, 검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국내의 영세 튜닝부품 기업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제품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국내 튜닝시장이 활성화되면, 2020년 이후에는 4조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튜닝산업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의 튜닝부품 시험·인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튜닝밸리조성팀장 김창오, 담당자 김태이, 김병만

3)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전남도는 2017년부터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영세한 국내 튜닝부품 기업을 단기간 내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사업화,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7년 3월 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6개 튜닝부품 선도기

업을 선정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튜닝부품 시험·평가를 위한 금속분석시스템, 마모측정시스템 등 13종 연구장비도 구축 중이다.

도는 튜닝부품 기업의 차부품 제조, 관리 등 기술경쟁력을 높여 국내 튜닝 산업을 선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대와 신규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기업도시담당관 정한권, 튜닝밸리조성팀장 김창오, 담당자 김태이

1-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가. 광양만권 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0월 30일 5개 지구 24개 단지 (88.98km²)가 지정되어 개발을 시작했으나, 개발 여건 변화에 따른 단지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는 광양지구, 울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경도지구, 하동지구의 6개 지구 18개단지(69.49km²)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단지가 개발완료 및 개발 중으로 개발률은 64.8%이다.

광양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개발전략으로 삼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해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한 기능 확보와 함께 제철 관련 재료 및 비철금속 거점화를 통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지구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지 1·2단계, 포스코터미널 CTS, 황금산업단지 등 5개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울촌지구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화학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산업 등 기존 기반산업을 연계한 생산기능과 인근 산단 물류기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울촌 1·2·3산업단지 조성, 울촌 항만부지 건설 등 4개 단지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울촌제1일반산업단지는 199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9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산단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로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분양률 제고를 위해 입주기업 요구에 맞는 맞춤형 부지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촌제2일반산업단지는 2002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1

단계 조성부지 중 일부(1.41km²)에 대해 준설토 매립이 완료됐으며, 울촌제3일반산업단지는 2017년 12월에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어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신덕지구는 광양만권 산업유치 지원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의료허브로 개발하고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배후기능 수행과 교육·주거·레저 등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대배후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 해룡일반산업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세풍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1단계 부지(0.47km²)가 조성 완료되었고, 2017년 11월에 조성부지 일부(0.08km²)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융복합소재실증화지원센터(KTR) 준공·운영으로 융복합소재 클러스터를 위한 연관기업 투자유치가 가능해 졌으며, 기술력 있는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질의 일 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광양 세풍일반산업단지 조감도 】



아울러, 해룡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6월에 일반산단 1차부지 조성공사(0.65km²)를 착공하여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으로 순천 뿌리기술지원센

터의 준공·운영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화양지구는 앞으로 다가올 해양레저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레저·스포츠·휴양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남중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연수원 등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334실 규모의 콘도를 신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그동안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지역 관광여건 호전으로 화양지구의 투자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변화를 활용한 화양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존 사업시행자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인 약 1.43km²를 제외한 8.56km²에 대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제공모를 추진하여 국내·외 잠재투자자들에게 화양지구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가치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6년 7월 법무부로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받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화양지구 조감도 】



경도지구는 아시아 최고의 힐링리조트 단지 조성을 위해 1조원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화양지구와 더불어 남중권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양만권은 제조업 중심 기업 유치 및 단지개발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미래형 관광산업 기반투자 확대를 통해 대규모 일자리창출과 관광 수요에 집중할 예정이다. 투자자인 미래에셋에서는 6성급 호텔, 4성급 호텔, 1,000석 이상 컨벤션센터, 마리나, 상업시설 등이 포함된 Master Plan을 확정하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경도지구 조감도 】



추진부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진동호, 개발정책과장 한재경,
담당자 김복청

나. 광양만권 주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주변 여건과 상황이 현저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

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유치 DB 통합관리, 현지 거주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자문위원 위촉(21명),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 분석 및 광양만권 바이오소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업종 집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단별·업종별·국가별로 특화된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 협성히스코, 승산팩, DSR제강, 현대스틸산업 등 국내·외 주요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냈으며, 지금까지 외국인 직접투자(FDI) 4억불을 포함한 304개 업체, 188억불을 유치해 44천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2017년에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51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17억 7천만불의 투자를 끌어냈다. 현재 투자유치가 진행 중인 MOU 체결기업은 74개 업체 58억불에 달하며 향후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가고 있고, 민선6기 출범이후 152개 기업, 투자유치 61억불, 일자리 1만 1천여 개를 창출했다.

추진부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1단장 신연호,
유치지원1팀장 서상철, 담당자 장원영

다.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강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산단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취업을 연계한 ‘기업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세무·회계 등 기업활동 분야별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사랑 자문단’을 구성하여 2018년 4월까지 46건의 자문을 했다.

또한, 전 직원을 ‘1기업 1도우미’로 지정·운영하여 현대제철 등 77개사를 대상으로 184건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청장이 입주기업을 23회 방문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남동부권 응급센터 등 전문 의료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49개사 2,182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건강예방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2015년에는 울촌제1산업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했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풋살경기장을 조성했다.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17개 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4회 개최하여 각 기관의 시책을 안내하며 기업경영 활동을 지원했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CEO 및 유관기관장 포럼’을 7회 개최하여 기업경영 활성화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을 모색했으며 입주기업의 소통과 상생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체 간 맞춤형 인력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입주기업 구인난 해소와 기업 친화적 입주기업 지원서비스 및 지역주민 배려 서비스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조성하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과장 방창성, 담당자 최세균

1-4. 지역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가. 지역개발계획 수립

전남도는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2018~2027)」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고시(2018. 1. 4.)했다.

지역개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과 거점지역 6개 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무안)의 131개 4조 8,293억원(국비 9,663억원, 지방비 1조 814억원, 민자 2조 7,815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했다.

도는 계획에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이창근

나. 지역개발 국비 공모 선정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의 전략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개발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문가, 주민 의견수렴 등 전략회의를 실시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공모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수요맞춤지원(연계)사업, 투자선도지구 등 92개 사업 1,284억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했다.

도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각종 기반조성 사업에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이창근

다.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전남도는 2014년에 특성 있는 지역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 발전계획(2014~2017년)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전남도의 비전을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 등으로 목표를 제시했다.

발전계획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6,380억원이며 지역생활권 인프라 구축,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등 6대 분야, 158개의 단위사업을 반영했다.

도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제4차 전라남도 발전계획(2018~2022년)」을 2018년 10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송경언

라.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전남도는 2011년부터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산강 강변도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에 근거해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도 1호선, 23호선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무안~광주간 고속도로에서 접근이 더욱 용이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2006년)와 기본 및 실시설계(2010년)를 마치고 2011년에 착공했고 2019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도로개설에 약 2,05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공사비 1,845억원은 국비로, 보상비 205억원은 도비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나주시 삼영동에서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까지 도로 34km에 2차로(폭원 13.0m)로 교량 8개소(1,612m), 터널 1개소(183m)를 설치하고 있다.

도는 이 도로가 영산강 유역 문화유적지와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정찬준

마.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0년부터 ‘전국 자전거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목포

시 등 9개 시·군에 139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

도는 앞으로 영산강과 섬진강주변 자전거도로 및 일반 시가지 자전거도로 등 687개 노선 1,256km를 지속해서 관리해 레포츠·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전거도로 현황 】

(단위: km)

계(Total)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노선수	길이
687	1,256	63	189	572	901	17	40	35	126



【 영산강 자전거길(담양군) 】



【 섬진강 자전거길(곡성군) 】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최 환

1-5. 남해안권 개발과 지역계획사업 추진

가.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

전남, 경남, 부산 3개 시·도지사의 ‘남해안시대 공동선언’(2005. 2. 4.) 이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2007. 12. 27.)됐고, 해안권 35개 시·군에 4개 분야 166개 사업 24조 3,900억원이 투자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2010. 5. 28.)했다.

전남도는 해안권 16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에 4개 분야 67개 사업 10조 7,577억원(국비 4조 1,045억원, 지방비 1조 2,330억원, 민자 5조4,202억원)을 계획에 포함했다.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분야별 사업비 내역 】

(2017. 12. 기준)

분 야	개소수	사 업 비	비 고
합 계	67	10조 7,577억원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조성	45	3조 7,016억원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	15	3조 6,546억원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3	2조 438억원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육성	4	1조 3,577억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선도사업, 중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다른 대부분 사업은 관련 중앙부처 및 협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 남해안권 발전사업 추진현황 】

(2017. 12. 기준)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기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5개사업	754	306	76	372	
소 계		2개사업	598	228	76	294	
선도사업	진도항 배후지 개발	2013~2018	432	150	75	207	진도항개발사업소
중점사업	고흥 우주랜드 조성	2013~2018	166	78	1	87	고흥우주항공사업소
소 계		3개사업	156	78	-	78	
시범사업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	2011 완공	22	11	-	11	여수시 등 7개 시·군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2013 완공	100	50	-	50	광양시
	해안마을 미관개선	2012~2014 완공	34	17	-	17	고흥군

도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효율화 연구용역(2013. 11.~2014. 5.)’ 결과 타당성이 없는 7건의 사업은 제외하고, 울포 해변 휴양테마파크 등의 새로운 사업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용역(2018. 2.~2019. 1.)을 전남과 경남 공동으로 추진하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와 국비 등 사업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강철홍

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추진

이 사업은 섬진강 양안에 산업 육성과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세부과제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선정(2013. 3.)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남 4개 시·군(여수, 광양, 순천, 구례)과 경남 4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총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확정(2013. 12.)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마스터플랜(2014. 6.)에 전남도 34개 사업 6,492억원이 포함됐고, 도는 선도사업 10건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동서통합지대 선도사업 】

(2018. 2. 기준)

연번	사업명	지역	예산(억)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10개소)			1,810	650	740	420		
1	동서통합대교 건설	광양 하동 구례	430	215	215		2016~2019	공동
2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광양 하동 구례등	40	20	20		2017~2019	공동
3	섬진강벚길복원 및 수상레저기반조성	광양 하동 구례	200	100	100		2016~2019	공동
4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	광양 하동	270	60	90	120	2017~2019	공동
5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협력강화 및 축제연계성 강화	광양 하동	90	45	45		2017~2020	공동
6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미정	100	20	80		2017~2020	공동
7	섬진강 하늘길 동서 케이블카 설치	광양 하동	300	30	30	240	2018~2020	공동
8	남해 동서기록 문화교류단지 조성	남해	180	90	90		2016~2019	경남
9	남해 국가별 테마거리 조성	남해	100	20	20	60	2017~2018	경남

연번	사업명	지역	예산(억)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민자		
10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구례	100	50	50		2016~2018	전남

도는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용역(2018. 2.~2019. 1.)에 반영해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사업 중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2017. 10. 착수)을 제외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강철홍

다.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방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해안권 발전거점조성사업 공모(2016. 5. 13)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여수·순천·광양·고흥)와 경남도(통영·거제·남해·하동)가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2016. 7. 5)됐으며, 국토부를 포함 11개 기관이 공동시행 협약을 맺고 기본구상 연구 용역(2016. 9. 30~2017. 10. 31) 추진을 완료했다.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는 남해안권 일반현황 및 연계 실태·잠재력, 관광수요 전망, 해외사례, 발전거점 조성 중점사업 추진전략, 중점사업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중점사업 추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조성 계획의 실행력 강화방안 등을 포함했다.

도는 국토부에서는 기본구상 내용을 바탕으로 9개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8월에 착수하여 201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면 남해안권 발전종합 계획(변경)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해안권 발전거점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 】

(2018. 3. 기준)

용역명	용역비 (억원)	용역기간	비고
계	22.151		
소계	14.775		
①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계획 수립연구	2.7	'17.11.21~'18.11.16	국비
②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시행방안 연구	5.75	'17. 9.25~'18. 9.19	“
③ 남해안 도로경관 형성·관리 시행방안 연구	2.54	'17. 9.29~'18. 7.25	“
④ 테마성 투어상품 개발 연구	1.67	'18. 2.27~'19. 2.22	“
⑤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연구	2.115	'17. 8.17~'18. 8.11	“
소계	7.376		
⑥ 통합관광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실행계획 수립 연구	2.01	'18. 2.22~'18.11.19	국비+ 지방비
⑦ 남해안 대중교통 이용 체계 개선방안 연구	1.78	'18. 2.7~'18.12.6	“
⑧ 남해안 유희시설 재활용 방안 연구	2.64	'18. 2.7~'18.11.4	“
⑨ 폐조선소의 관광인프라 전환방안 마련연구	0.916	'18. 2.19~'18.7.18	“ (경남만 해당)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강철홍

라.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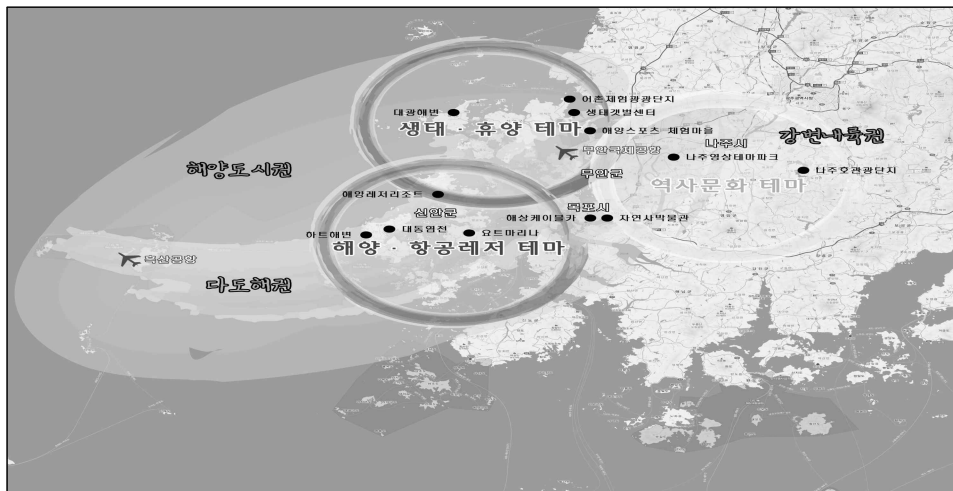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지방의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공모(2017.5.3.)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목포·나주·무안·신안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남해안 해(海), 강(江)의 생생(生生)누리 교류거점」 사업이 최종 선정됐으며, 전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연구용역(기본구상)」을 2018년 3월 2일 착수하여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본구상(안)에는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인문환경, 관광여건, 산업여건, 지역자원 등과 관광수요 전망, 국내·외 사례조사, 지역 공동발전 테마 및 광역루트 조성, 중점사업 도출 및 연계·협력 추진 전략), 민간자본 유치 촉진 방안, 계획의 실행력 강화 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이 포함된다.

도는 기본구상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하도록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상권역 공간배치 구상도 】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강철홍

마.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1) 생활권 선도사업

전남도는 지자체 간의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생활권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및 제7조2에 근거해 2~4개 시·군을 공동 권역으로 구성하여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경쟁·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① 서남부권(목포, 무안, 해남, 진도, 신안) ②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③ 구곡담권(담양, 곡성, 구례) ④ 중부권(나주, 화순) ⑤ 서북부권(함평, 영광, 장성) ⑥ 중남부권(장흥, 강진, 영암, 완도)등 6개의 생활권과 특별히 광주시와 연계된 광주중추권으로 확정(2014. 2.14. 시·군간 협약 체결)했다.

도는 2014년에 92억원(국비 83, 지방비 9)을 투입하여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했고, 2015년에 125억원(국비 97, 지방비 28)의 사업비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중지능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16년에 67억원(국비 51, 지방비 16)을 투입하여 건강기능차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꿀벌인증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에 94억원(국비 72, 지방비 22)을 투입하여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신규 공모사업은 추진되지 않는다.

【 2014년~2017년 선정 생활권 선도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선정년도	사업명(생활권)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3개 사업	37,730	30,340	1,877	5,513
2014 (8)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서남부) 패류종묘 배양장 공동활용(동부)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센터(중부) 농산업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구곡담)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 운영(서북부) 도서 낙도주민 이동편의시설 확충(중남부)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광주중추) 한뿌리생활권 지역경제 순환(광주중추)	9,183	8,266		917
2015 (6)	취약지역 응급협진 네트워크(서남부) 동부권 명품 생태 치유벨트 조성(동부) 다중지능 교육활동 운영(구곡담) 재난재해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서북부) 농산업 창업육성지원센터 설치 운영(중남부) 소생상생 로컬푸드 체계구축(광주중추)	12,473	9,708	825	1,940
2016 (4)	건강기능차 6차산업화 지원사업(동부) 남부지역 곁별인증 산업생태계 조성(구곡담) 상생나무 행복디자인 사업(중남부) 무등산권 전통문화지구 조성(광주중추)	6,727	5,167	469	1,091
2017 (5)	평생누리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중남부) 미생물 활용, 잘사는 구곡담(구곡담)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중남부) 무등산권 지질관광 활성화(광주중추) 남도 청년 장돌뱅이 사업(광주중추)	9,347	7,199	583	1,565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송경언

2)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남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뜰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과 도시 빈곤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설명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추진했다.

2015년 선정된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지역 2개소(여수, 순천), 농어촌지역 10개소(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신안) 등 총 12개소에 3~4년간 394억원(국비 278, 지방비 116)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도시지역 3개소(목포, 여수, 장성), 농어촌지역 8개소(광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등 총 11개소가 선정됐고, 2017년에는 농어촌지역 8개소(여수, 곡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신안)가 선정되어 2019년까지 350억원(국비 260, 지방비 90)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신규 새뜰마을 공모 사업은 중단되고, 유사한 사업의 신규 수요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 2015~2017년 선정 새뜰마을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선정년도	시·군		총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74,410	53,770	5,742	14,898
2015	도시	여수시, 순천시	15,378	9,721	1,249	4,408
	농어촌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신안군	24,038	18,054	1,795	4,189
2016	도시	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10,522	7,595	878	2,049
	농어촌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12,413	9,400	903	2,110
2017	농어촌	여수시,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완도군, 신안군	12,059	9,000	917	2,142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이진의

3) 창조지역 사업 추진

전남도는 기존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창조지역 사업을 시행했다.

창조지역사업은 문화예술, 생태자원,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 자문단을 시·군별로 구성하고 사업설명회와 발굴사업 보고회를 열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한 결과, 다수의 사업이 선정됐다.

2014년~2015년에 순천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48억원(국비 36, 지방비 12)을 들여 추진했고, 2016~2017년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59억원(국비 43, 지방비 16)의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부터 신규 공모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

【 2014~2017년 선정 창조지역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선정년도	사업명(시·군)	총사업비		
		계	국비	시군비
계	14개 사업	10,710	7,976	2,734
2014 (4)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강진) 천년의 소리, 대피리 고을 문화학교(담양) 느린섬 여행학교 힐링캠프 메카만들기(완도) 철도문화 마을 만들기(순천)	3,100	2,230	870
2015 (3)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곡성)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 선애마을(영암)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新 커뮤니티 만들기(진도)	1,724	1,382	342
2016 (3)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 강진’ 만들기(강진) 야화(野花)의 베일 벗기다, 야생화 오감만족(구례) 섬·주민·관광객이 만드는 ‘완도섬 여행등대’(완도)	2,431	1,945	486
2017 (4)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담양) 고흥 이야기(설화) 천국 창조 사업(고흥) 긍정의 컬러마케팅! ‘노란예술마을’ 감성여행(장성) 온 가족이 즐기는 바다의 향 ‘싱싱완도’ 사업(완도)	3,455	2,419	1,036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지역개발팀장 송영수, 담당자 송경언

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국비50%, 지방비50%)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 생활환경개선(마을단위 생활기반 확충, 주거환경개선, 골목상권개선) 7건 775억원, 지역역량강화(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건 4억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건을 완료하고 6건을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신규사업 공모 없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포함 추진하게 된다.

【 도시활력 증진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시군)	재원	총사업비
계	계	77,919
	국비	22,972
	시비	54,947
철도폐선부지 (목포시) (2010~2015)	계	20,795
	국비	10,000
	시비	10,795
만호지구주거재생사업 (목포시) (2014~2018)	계	1,544
	국비	772
	시비	772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 (목포시) (2014~2016)	계	1,000
	국비	500
	시비	500
근대역사테마길 (목포시) (2014~2018)	계	36,180
	국비	2,500
	시비	33,680
동외동지구농촌중심지활력 (순천시 동외동) (2016~2019)	계	6,000
	국비	3,000
	시비	3,000

사업명(시군)	재원	총사업비
생태창조체험의 메카향림촌 만들기 (순천시) (2016~2018)	계	400
	국비	200
	시비	200
인제C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순천시 인제동) (2017~2020)	계	6,000
	국비	3,000
	시비	3,000
불꽃 튀는 너른마당 광영조성사업 (광양시) (2017~2020)	계	6,000
	국비	3,000
	시비	3,000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재생팀장 정석규, 담당자 정다운

2. 지역맞춤형 개발사업

2-1.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1) 광역도시계획분야

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16개 시·군 11,985km²에 광주권(2001~2020), 광양만권(2003~2025), 서남권(2005~2025)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①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km²이며, 계획인구는 220만명이다.(2003. 9. 24. 국토교통부 승인)

도는 이 계획에 녹지축·개발축 등 공간구조 및 생활권 계획과 1973년 1월 17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287.11km² 중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조정할 수 있도록 20.72km²를 해제 가능면적으로 결정했으며,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광역공급시설 확보 계획을 반영했다.

그리고, 광역시설계획은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을 반영했다.

② 2025년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을 포함하는 5,279km²이며, 계획인구는 115만명이다.(2006. 5. 4. 국토해양부 승인)

도는 이 계획에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시키고 전주~여수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는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했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 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을 포함했다.

③ 2025년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기업도시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km²을 인구 90만명의 광역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이 계획에 담겨 있다. (2009. 3. 30. 국토해양부 승인)

도는 이 계획에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반영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다도해 특정지역 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 등도 반영했다.

현재, 위의 광역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 중 광주~무안, 전주~여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여수~묘도~광양간 연륙사업은 완료했고, 광주~강진간 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전남도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287.11km²이었으나 2017년까지 집단취락지역 등 16.29km²를 해제하여 270.82km²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 잔

여면적으로 10.64km²(도 6.21km², 시·군 4.43km²)가 남아있다.

도는 해제 잔여면적 6.21km² 중 2.33km²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배분하고, 3.88km²는 3개 시·군(나주, 담양, 화순)에 생물생명산업 특화단지 물량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

(2017. 12월)

구 분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km ²)	당초	287.11	42.90	115.18	41.70	87.33
	현재	270.82	39.42	108.50	41.19	81.71

2) 도시계획분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 제정·시행)」에 따라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군 등 12개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개 전 시·군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법률에서 계획수립 후,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7개 시·군이 완료했고, 도시·군관리계획은 8개 시·군이 완료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15,316km² 중 도시지역은 1,698km²(11.1%), 관리지역은 3,454km²(22.5%), 농림지역은 6,258km²(40.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906km²(25.5%)로 2014년과 비교하여 도시지역은 31.0km²가 감소한 반면, 관리지역은 14km², 농림지역은 15km²가 증가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큰 변동사항이 없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도로, 철도 등 52개 시설에 716.8km²로, 19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2020. 7.)될 계획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선 해제시설 분류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2016. 12.)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5년 9월 30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공원 139개소 7.0km²를 해제했다. (2015. 10.)

한편, 도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주민 및 기업투자 불편해소,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시설 결정(변경) 심의·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24회를 개최하여 총 70건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했다.

【 전라남도 도시·군계획 수립현황 】

(2017. 12.기준)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면적(km ²) (육지+해면)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최 종 승인일	면적 (km ²)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결 정 고시일
계	7,244.71	1,656,000			7,332.04	1,706,278		
목포	112.49	310,000	2020	2010.09.01	112.49	310,000	2020	2014.07.31
여수	3,853.64	390,000	2030	2014.12.11	1,024.82	374,000	2020	2015.04.30
순천	936.06	340,000	2030	2016.11.01	935.73	340,000	2015	2009.03.27
나주	603.54	195,000	2030	2017.03.03	604.07	140,000	2015	2011.05.04
광양	497.65	270,000	2030	2016.09.09	497.65	240,000	2025	2017.11.30
담양	455.12	65,000	2020	2007.12.31	455.88	61,000	2015	2010.11.12
곡성	-	-	-	-	548.42	32,000	2020	2015.11.19
구례	-	-	-	-	443.14	30,000	2025	2017.04.20
고흥	-	-	-	-	1,179.47	64,100	2025	2017.05.25
보성	-	-	-	-	743.53	45,000	2020	2012.01.05
화순	786.21	86,000	2020	2009.05.14	786.84	70,178	2015	2010.12.29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면적(km ²) (육지+해면)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최 종 승인일	면적 (km ²)	계획인구 (인)	목표 연도	결 정 고시일
장흥	-	-	-	-	649.32	50,000	2015	2009.06.26
강진	-	-	-	-	563.22	49,000	2025	2017.06.29
해남	907.23	135,000	2025	2009.01.07	963.83	130,000	2015	2009.06.19
영암	565.79	210,000	2020	2016.08.16	630.80	150,000	2015	2009.04.27
무안	652.92	100,000	2030	2017.03.31	484.92	110,000	2015	2009.09.11
함평	392.76	45,970	2030	2016.05.24	426.08	35,000	2015	2009.07.21
영광	-	-	-	-	554.63	60,000	2015	2009.05.04
장성	518.50	70,000	2020	2006.11.03	518.58	66,850	2020	2017.01.05
완도	-	-	-	-	1,079.72	55,000	2015	2010.04.13
진도	-	-	-	-	994.06	50,000	2015	2011.03.18
신안	-	-	-	-	1,118.81	65,000	2015	2009.11.13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장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정인권, 김인호

나. 택지·도시개발사업 추진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개발 사업이다.

도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총 90개 지구 36,658천m²가 지정됐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개발 25개 지구 12,954천m², 도시개발 31개 지구 13,141천m², 토지구획정리사업 34개 지구 10,563천m²이다.

이 중 택지개발 23개 지구 10,111천m², 도시개발 18개 지구 5,692천m², 토지구획정리사업 30개지구 8,227천m² 등 총 71개 지구 24,030천m²는 개발을 완료했고, 택지개발 2개 지구 2,843천m², 도시개발 13개 지구 7,449천m², 토지구획정리사업 4개 지구 2,336천m²는 개발 중이다.

특히, 도는 2017년에 여수 죽림1지구(987천㎡)와 순천 용당2지구(38천㎡), 순천 복성지구(72천㎡)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했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

□ 추진지구

(단위 : 천㎡)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적	사업기간	비고
합계	2		2,843		
무안	오룡	전남개발공사	2,702	'05~'21	20%
고흥	남계	내공사	141	'04~'18	50%

□ 준공지구

(단위 : 천㎡)

시군	지구명	시행자	면적	사업기간	비고
합계	23지구		10,111		
목포	상동	주택공사	56	'88~'92	준공
	하당1	목포시	823	'89~'96	"
	연산	주택공사	52	'93~'96	"
	용해1	주택공사	73	'00~'04	"
	용해2	내공사	338	'98~'13	"
목포/무안	옥암, 남악	목포시, 전남개발공사	6,239	'03~'15	(남악신도시 일부준공)
여수	여서, 문수	여수시	382	'86~'95	준공
	미평	여수시	90	'91~'95	"
	둔덕	주택공사	20	'92~'97	"
	죽림	주택공사	204	'92~'08	"
순천	금당	전라남도	231	'90~'92	"
	연향1	순천시	230	'89~'92	"
	조례1	순천시	56	'93~'96	"
	조례2	주택공사	53	'89~'92	"
	왕지	순천시	98	'96~'99	"
	금당2	순천시	159	'96~'99	"
	연향2	토지공사	108	'92~'99	"
	연향3	순천시	87	'00~'04	"
오천	순천시	591	'12~'15	"	
나주	대호	토지공사	44	'00~'02	"
화순	광덕1	전라남도	25	'89~'91	"
	광덕2	전라남도	48	'90~'91	"
	광덕3	전라남도	104	'94~'97	"

【 전라남도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 추진지구

(단위 : 천㎡)

시군	지 구 명	시 행 자	면 적	사업기간	비 고
합계	13지구		7,449		
목포	임 성	목포시장	1,979	'13~'23	실시계획수립
여수	만 흥	여수시장	221	'15~'20	'18년말 착수
	죽 림1	전남개발공사	987	'17~'21	협의중
순천	용 당	덕진종합건설(주)	45	'13~'18	54%
	용 당2	동연건설(주)	38	'17~'21	실시계획수립 완료
	복 성	(주)해광건설	72	'17~'20	실시계획 수립중
나주	남 평	나주시장	303	'08~'18	98%
광양	와 우	광양시장	637	'14~'19	55%
	광영·의암	광양시장	546	'12~'19	52%
	성황·도이	광양시장	655	'09~'20	5%
담양	목 성	(주)부영주택	678	'09~'18	'18년 착수
	첨단문화복합	담양대숲마루(주)	1,277	'14~'20	9%
함평	기 각	(주)엠디건설	11	'12~'17	5%

□ 준공지구

(단위 : 천㎡)

시군	지 구 명	시 행 자	면 적	사업기간	비 고
합계	18지구		5,692		
목포	신도심2	목포시장	688	'94~'99	준 공
	백 련	목포시장	324	'11~'16	"
순천	연향·상삼	(주)삼덕건설	31	'04~'16	"
	왕조(운곡)	순천시장	411	'05~'10	"
나주	삼 영	나주시장	109	'87~'89	"
	송 월	나주시장	83	'96~'99	"
	송 월	나주시장	298	'06~'10	"
광양	중 마 1	광양시장	337	'89~'91	"
	중 마 2	광양시장	734	'91~'93	"
	중 마 3	광양시장	1,560	'91~'93	"
	광 영	광양시장	169	'86~'88	"
	중 동	(주)리체	53	'08~'16	"
	도 촌	광양시장	24	'02~'06	"
	마 동	마동도시개발조합	548	'08~'15	"
구례	봉 북	구례군수	185	'92~'97	"
해남	해 리	해남군수	40	'92~'94	"
영암	동 무 2	영암군수	45	'08~'14	"
무안	불 무	무안군수	53	'94~'95	"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장 김희원, 도시계획팀장 김운형, 담당자 배덕수, 강철홍

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1) 도시재생사업(기존)

국토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충산, 저성장 등으로 쇠퇴하는 중소도시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3년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市지역을 대상으로 46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4년에 2개 지역(목포, 순천) 2016년에 2개 지역(나주, 광양)이 사업에 선정되어 테마거리조성, 생활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600억원(국비 260, 지방비 340)을 투자하고 있으며 2개 지구(목포, 순천)를 완료했고 2개 지구(나주, 광양)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2018. 2. 기준)

연번	사업명	지역	예산(억)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4개소)			600	260	340		
1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	목원동	200	100	100	2014~2017	선도 (완료)
2	순천 도시재생 선도지역	향동, 중앙동	200	60	140	2014~2017	선도 (완료)
3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	광양읍	100	50	50	2016~2020	일반 (추진중)
4	나주 도시재생 사업	금남, 성북동	100	50	50	2016~2020	일반 (추진중)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남도는 2017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

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2021년까지(5년간) 5개 유형에 50조를 투입해 매년 100여 곳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첫해인 2017년에는 전국 68곳을 선정했다. 도는 2017년 사업에 5곳(목포시 2, 순천시 2, 나주시 1)을 포함시켰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개 유형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6년간) 250억원을 각각 국비 지원을 한다.

사업의 규모는 5만㎡~50만㎡(우리동네살리기: 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 5~10만㎡ 내외, 일반근린형: 10~15만㎡ 내외,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경제기반형: 50만㎡ 내외)까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매년 7~8곳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17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

(2018. 2. 기준)

연번	사업명	지역	예산(억)			사업기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5개소)			983	550	433		
1	목포 보리마당	유달동	200	100	100	2017~2020	선도
2	목포 1897개항문화의거리	만호동	250	150	100	2017~2021	선도
3	순천 비타(vita)민(民),갈마골	저전동	200	100	100	2017~2020	선도
4	순천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들	장천 남제동	250	150	100	2017~2021	선도
5	나주 도란도란 만들어가는 역전마을	영강동	83	50	33	2017~2019	선도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 김희원, 도시재생팀장 정석규, 담당자 손근식

라. 산업단지 조성

1)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광양만권은 1970년대 중반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정책에 힘입어 여수 석유화학단지 및 광양제철소 인근 지역의 산업 집중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과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 곤란, 최근 급부상하는 중국 중화학공업발전 상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의 시설 현대화와 신기술개발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삼호 일반산단 활성화,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지역의 기업 도시 개발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① 광주송정~목포간 호남선 KTX 건설 ② 남해안 철도(보성~목포) 건설 ③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④ 흑산공항 건설 ⑤ 호남선 KTX 경유에 따른 무안공항 활성화 ⑥ 연륙·연도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을 가진 전남 서부권지역은 향후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2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이 이전함에 따라 나주 혁신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기업 500개사 유치 및 일자리 2

만개 창출을 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광주시보다 지가가 싸고,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의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 산업단지 조성현황

전남도내에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을 받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37개소에 226,191천㎡로, 조성률은 77.1%이다.

국가산업단지는 5개소(여수, 여수 삼일비축,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일반산업단지는 31개소(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7개 시·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개소(순천)이다.

도는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 유해업종만 입주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에너지·생물 등 신성장 산업 입주와 수요자 맞춤형 용지공급 등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2개의 노후 산단(순천, 여수 오천)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 근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전남 산업단지 조성현황(2017. 4분기 기준) 】

(단위 : 천㎡, %)

시·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합 계	37개소	226,191	134,928	104,059	77.1
국가산단	5개소	174,320	83,049	75,231	90.4
여 수	여 수	50,650	35,053	33,880	96.7
"	삼일비축	4,157	3,777	3,777	100.0

시·군	산 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광 양	광 양	96,405	29,029	24,376	84.0
영 암	대 불	20,887	12,977	12,977	100.0
함 평	빛그린	2,213	2,213	221	10.0
일반산단	31개소	51,879	51,879	28,828	55.6
목 포	삼 진	218	218	216	99.1
"	대 양	1,545	1,545	1,551	100.0
"	세라믹	116	116	116	100.0
여 수	오 천	222	222	222	100.0
"	울 촌 1	9,108	9,108	8,938	98.1
"	울 촌 2	3,793	3,793	0	0.0
"	울 촌 3	9,762	9,762	0	0.0
"	묘 도	368	368	26	18.0
순 천	순 천	583	583	583	100.0
"	해 룡	1,592	1,592	1,592	81.2
나 주	문 평	323	323	323	100.0
"	나 주	549	549	549	100.0
"	혁 신	1,789	1,789	1,789	100.0
"	신 도	298	298	298	100.0
광 양	황 금	1,116	1,115	1,116	18.0
"	신 금	398	398	398	100.0
"	익 신	474	474	474	100.0
"	세 풍	2,474	2,426	2,427	18.0
담 양	담 양	583	583	583	100.0
고 흥	도 양	2,684	2,684	2,684	0.0
화 순	생물의약	755	755	755	100.0
장 흥	바이오식품	2,892	2,892	2,892	100.0
강 진	환 경	655	657	655	100.0
해 남	화원조선	2,054	2,054	2,054	8.7
영 암	삼 호	2,971	2,971	2,971	100.0
"	용 당	351	351	351	0.0
무 안	운 남	85	85	85	50.0

시·군	산업 단지명	지정 면적	개발 대상	조성현황	
				면적	조성률
함 평	동함평	739	739	739	100.0
영 광	전기자동차	1,652	1,652	1,652	100.0
장 성	나 노	901	901	901	100.0
진 도	군 내	686	686	686	61.0
도시첨단	1개소	190	190	0	0
순 천	도시첨단	190	190	0	0

3) 구조조정 및 산업입지 수급계획 재수립

최근 조선경기 침체와 중소규모 위주의 첨단산업으로 산업유형의 변화 등 대외적인 흐름의 변화로 인해 산업단지 수요면적은 감소하고, 일부 시·군의 경쟁적인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공급과잉은 산업입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장기 미집행 산업단지 2개소(보성 신소재산단, 신안조선타운)를 2014년 12월과 2016년 3월에 각각 지정 해제했고, 대규모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은 지양하면서 에너지산업, 드론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을 수립했다.

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일자리정책실행협업), 향후 산업단지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장 김희원, 산단조정팀장 이유옥, 담당자 이광남, 기낙구, 류원식

마. 농공단지 조성

1) 농공단지 조성현황

전남도는 1984년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도는 2017년까지 21개 시·군 68개소(10,010천㎡)를 지정해 지금까지 57개소를 조성 완료했고,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11개소(화양한옥, 해룡선월 남평, 운곡, 자연드림파크2, 대서, 동강특화, 몽탄, 명암축산, 영광식품, 해양생물)로 이 중 공영개발방식은 4개소, 민간개발은 7개소다.

단지의 규모는 165천㎡ 미만 46개소, 165천㎡ 이상~331천㎡ 미만 20개소, 331천㎡ 이상 2개소로 331천㎡ 미만 단지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입주 희망 기업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복합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특화농공단지는 4개소(곡성, 구례, 고흥, 무안)를 신규로 조성 및 육성할 계획이다.

2) 분양현황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분양공고 면적 7,643천㎡ 중 7,344천㎡이며, 분양률은 96.1%이다. 미분양된 299㎡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2017. 말 기준) 】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양 현황(천㎡)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공고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 단지	11,431 68개단지	11,010 57개단지	7,643	7,344	299	96.1	56,857원/ ㎡

추진부서 ● 지역계획과장 김희원, 산단조성팀장 이유옥, 담당자 류원식

2-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전남도 내 주택 수는 805,098호(2017년 1월말)로 주택보급률은 110.7%에 이르지만,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260,118동(60.5%)으로 전국 평균(45.3%) 보다 높고, 빈집(2.6%)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빈집의 실태를 파악해 농어촌 체험과 귀농·귀어민에게 리모델링 후 공급하는 활용방법과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등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가. 행복등지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6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비수급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행복등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복등지 사업은 주거안전시설(주택구조, 전기, 가스 등)과 생활편의시설(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후주택 신축개량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시·군,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참여 기업체의 사업비 지원과 전라남도건축사회,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재능기부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6~2017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해 218가구를 지원했고, 2018년에는 1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1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국가·독립유공자까지 확대해 지원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신축개량과 개·보수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행복동지사업 추진실적 】

(단위 : 가구)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계획
합 계	218	112	106	130
기초생활수급자	110	53	57	80
차상위계층	103	59	44	45
국가·독립유공자	5	-	5	5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장영태

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전남도는 1975년부터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낡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개축·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의 신·개축을 하는 주택이다. 지원기준은 2015년까지는 토지·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액의 70% 수준에서 연리 2.7%로 지원했으나, 2016년부터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액 이내로 최대 2억원, 연리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17년까지 1조 6,641억원을 투입해 주택 86,597동을 개량했고, 2018년에는 1,677동을 개량할 계획이다.

도는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 가구 등을 우선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인구유입과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실적 】

구 분	합 계	1975~2014	2015	2016	2017	2018 계획
사업량(동)	88,274	81,840	1,415	1,752	1,590	1,677
사업비(억원)	17,479	14,137	849	876	779	838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이관후

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

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11,154동이며, 2017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해 34,315동을 정비했고, 2016년부터는 빈집을 정비후 부지를 농어촌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마을 주차장, 한뼘 공원, 마을 쉼터, 운동시설 등 공공용지로 활용했다.

도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센터’에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빈집관리와 빈집정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건물에너지 정보, 지적도 등을 DB화하고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빈집정비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동	사업비
1,444	2,064	1,373	1,616	1,103	1,324	1,233	1,600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정선호

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전남도는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소득, 가구원수, 주거유형(주택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2015년 6월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해 왔으나, 통합 급여체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그해 7월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4개의 급여로 분리해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지원방식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에게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해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에게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경, 중, 대)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도는 2017년에 36천가구(임차33, 수선3)에 495억원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43억원이 늘어난 53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도는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8년 중위소득(천원)	1,672	2,847	3,683	4,519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	719	1,224	1,584	1,943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박순란

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전남도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출입문·화장실 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가구당 장애인 수, 65세이상 고령자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지원한다. 소요 비용(가구당 380만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5)한다.

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45가구에 10억원을 투입했고, 특히 2017년에는 수차례 국비 지원을 건의해 전국 최다인 166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주거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200가구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실적 】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계획
지원가구	445	79	166	200
지원액(천원)	1,691,000	300,200	630,800	760,000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박순란

바. 공동주택 품질 관리

전남도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4월 10일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1)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운영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 4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까지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 검수를 실시했고, 결함이 있는 설계도서는 시정 반영했다. 또한, 시공 시 주의사항 사전고지 여부, 마감 처리와 안전관리 사항 보완 등 총 456건의 시정사항을 도출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동주택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줄어들어 등 건전한 주택건설 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 단지별 현장 검수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에 힘쓸 계획이다.

2)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운영

전남도는 2015년부터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용역, 공사의 사업 자문과 단지 관리비 집행실태 감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건축사 등 6명으로 구성하고, 관리비 컨설팅(관리비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 등)과

조사·감사(관리비, 잡수입, 관리규약 준수 등) 업무를 수행했다.

관리지원단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까지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57건의 불합리한 회계집행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주택행정팀장 유영광, 담당자 정선호, 이관후

사.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빈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개념의 건축물이다. 최근 신기후 변화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저에너지 건축물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2013년)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하는 등 녹색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5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포함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부문의 감축 의무 할당량 이행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내용 】

3대전략	7대 정책과제
1.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구축	1) 녹색건축정책 시행 체계 구축 2) 전라남도 녹색건축 기준 마련
2.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1) 지역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추진 2)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노후 불량 건축물 정비 3) 고령 친화 녹색건축물 개발 및 보급
3. 녹색건축물 저변 확대	1) 녹색건축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중화 2)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업 및 인력지원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건축관리팀장 김지호, 담당자 심동섭

아.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전남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2015. 6. 4. 시행) 제5조 및 정부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고 활용하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수립이 필요했다.

도는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해 기초조사를 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활동을 위해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건축사,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건축자산 발굴 및 지킴이단」을 2018년 3월까지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도는 시행계획을 수립을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무분별한 훼손·멸실을 줄이고, 이를 관광·문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②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 ③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④ 시·군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구역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 ⑤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건축문화교육 등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건축관리팀장 김지호, 담당자 임창환

자. 한옥(행복)마을 조성·관리

전남도는 2006년부터 농어촌 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한옥(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주민과 후손들이 마을을 보존하면서 도시민들이 돌아와 활력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는 2007년부터 행복(한옥)마을 105개를 선정해 한옥 1,736동 건립을 위한 보조, 융자, 기반시설비 등 849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1,444동을 완공하고 292동을 조성하고 있다.

도는 2016년에 사업 명칭을 '행복마을'에서 '한옥마을'로 변경하고, 신청자격을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에서 신청 시 신축 예정부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완화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74개 마을에 약 3,366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마을·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마을의 자립 역량이 향상했다.

'2012년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 수상과 '2014년 행정자치부 주관 제11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미래의 '농어촌마을 발전 모델'로 인정받았다.

【 한옥(행복)마을 및 건립 대상자 선정현황 】

(단위 : 개소, 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 ~ 2015	2016 ~ 2017	비 고
마을수	105	104	1	
가구수	1,736	1,677	59	
보조금	28,421	27,439	982	
융자금	40,586	36,107	4,479	
기반시설비	15,900	15,300	600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한옥마을팀장 김형국, 담당자 신형욱

차.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전남도는 2010년부터 한옥 문화관광 명소화, 한옥 산업분야 지역 인재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한옥을 주제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했다.

도는 2017년까지 6차례 박람회를 개최해 한옥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업체 확대 등 한옥의 산업화를 위해 노력했다.

도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 박람회를 2019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산업의 정보교환 및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한옥건축박람회 추진실적 】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기 간	2010.10.26 ~10.31	2012.10.27 ~ 11. 1.	2013.10.31 ~ 11. 5.	2015. 4.9. ~ 4.12.	2016. 4.7. ~ 4.10.	2017. 4. 6. ~ 4. 9.
주 제	천년의 유혹, 녹색의 감동	천년을 품은 지혜, 미래를 짓는 한옥	한옥의 현대화	한옥, 그 오래된 미래	한옥의 재발견	미래건강주거 한옥 4.0
주요행사	7종, 34개 행사	6종, 17개 행사	7종, 27개 행사	5종, 17개 행사	5종, 24개 행사	5종, 25개 행사
방문객	약 92천명	약 75천명	약 102천명	약 200천명	약 120천명	약 200천명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한옥마을팀장 김형국, 담당자 신형욱

카.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남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인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2014. 5.)하고 「새꿈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세부지침」을 마련(2014. 10.) 했으며, 기반시설비를 지구당 최대 30억원(도비 15, 시군비 1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009년에 새꿈도시 후보지로 38개소를 최초 지정한 후 2018년 현재는 47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무안 월선지구, 담양 대덕지구 3개의 선도 사업지구는 조성하고 있다.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232만㎡의 부지에 1,300세대 입주 계획으로 지금까지 1단계(157세대) 중 56세대가 분양 완료됐으며, 무안 월선지구는 227천㎡의 부지에 239세대 입주 계획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승인 중이다.

담양 대덕지구는 161천㎡의 부지에 100세대 입주 계획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개발여건이 양호한 순천 원당지구, 진도 죽림지구, 장성 푸른솔CC지구 3개의 우수 후보지를 비롯한 4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세계 부동산 박람회와 기업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민간개발사업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팸투어등 입주자 홍보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건축개발과장 방길현, 한옥마을팀장 김형국, 담당자 김상중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SOC확충

3-1. 도로망 구축

가. 도로 건설

전남도 내 고속도로는 6개 노선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고창~담양간은 2007년, 무안~광주간은 2008년, 전주~광양간은 2011년, 영암~순천간은 2012년,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는 2015년에 각각 개통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2017년 9월 착공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국도 77호선 등 미개통 구간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며, 화양~나진 등 국가지원지방도 9개 지구와 유치~이양 등 지방도 2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군에서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 도로현황 (2017년) 】

(단위 : km, %)

구 분	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연 장	10,590	417	2,021	2,300	5,852
포장률	79.5	100	96.3	77.4	73.1

【 도로건설 추진실적 (2017년) 】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합 계	62	55	5,487
고속도로	1	-	1,449
일반국도	22	30.6	1,342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2	3.9	650
국가지원지방도	10	8.9	1,116
지방도	27	11.6	930

추진부서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계획팀장 이상훈, 담당자 양시봉
도로시설팀장 정윤수, 담당자 박성우

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전남도는 국가기간교통망 남북2축 노선에 연결하고 중·서부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관광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완도간 고속도로(88.61km) 개설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도는 1999년 12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된 이후, 2013년까지 지역주민·지자체·정치권이 공동으로 정부에 수차례 사업 착수를 요청했고, 4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

도는 교통수요 등 여건 변화와 우리 도민의 숙원을 사유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끝에 2014년 광주~해남구간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타당성 재조사 실시 결과, 광주~강진간 51.11km 구간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구간 축소에 따라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조기완공을 위해 1단계(광주~강진, 51.11km)를 우선 착수하고, 2단계(강진~해남, 37.50km)는 건의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도는 1단계(광주~강진) 구간을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2017년 9월에 착공(7개 공구)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잔여구간인 2단계(강진~해남)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됐으므로 1단계(광주~강진)와 연계해 2024년까지 전구간을 개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계획팀장 이상훈, 담당자 양시봉

다. 연륙·연도교 건설

전남도는 교통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확충과 섬, 해변 등 해양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도로망 조기 구축과 국도 77호선 구간의 연결을 위해 2020년까지 105개소에 11조 1,863억원을 투입해 연륙·연도교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2017년까지 5조 605억원을 투입해 53개소를 준공했으며, 12개소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역자원이 뛰어나고 특화된 섬 지역의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섬 지역 교통망 구축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 중(2018. 2.~2019. 1.)이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대응하고 있다.

도는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연륙·연도교는 SOC 국고건의 사업에 포함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계획팀장 이상훈, 담당자 양시봉

라. 새천년대교 건설 및 개통 대응

새천년대교는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국도2호선 연륙·연도교로 총사업비 5,698억원을 투입, 총연장 10.8km, 교량 7.2km, 왕복 2차선 도로로 건설된다.

지난 2010년 9월 착공하여 2019년 4월 준공될 예정이며, 1공구 압해도 구간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 압해도 구간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다.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연간 180만 명 수준인 신안군 전체 관광객이 대교개통(2018년 12월) 이후인 2019년에는 450만 명으로 늘어나 2.5배 증가하고, 대교건설 중심 지역인 신안 중부권의 관광객은 116만 명으로 2013년 23만 명 대비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숙박부족, 음식 등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 상수도 공급능력 부족, 쓰레기 처리 대책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여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도는 이에 대응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서비스 향상, SOC 확충 등 4개 분야 총 27개의 대응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2017년 4월, 2018년 2월 등 4차례 개최했다.

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대응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교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확충과 교량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이행해 나가는 등 새천년대교 개통이 전남 서남권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이형찬

마.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

전남도는 1996년부터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를 확충하고 교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24년까지 총 123개 지구에 11조 1,448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9조 3,292억원을 투입해 122개 지구를 건설했으며, 그 중 96개 지구는 준공했다.

도는 2018년에 1,737억원을 투입해 국도 77호선 화양~적금 등 2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용산~장흥 등 2개 지구는 준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서지역과 해안의 접근성을 향상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도 77호선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계획팀장 이상훈, 담당자 양시봉

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전남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2027년까지 총 39개 지구에 3조 1,583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보상비는 지방비 10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7년까지 26개 지구에 1조 8,646억원을 투입해 17개 지구는 준공했고, 10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도는 2017년에 10개 지구에 1,115억원을 투자해 세지~송현, 몽탄~동강 2개 지구를 준공했으며, 화양~나진 등 7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도계~장성간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다.

도는 2018년에 10개 지구 96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사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공사비와 보상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계획팀장 이상훈, 담당자 양시봉

사.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전남도는 1981년부터 지역간 도로망 연결체계를 구축과 농수산물 및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7조 9,6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개 노선, 1,963km의 지방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2011년까지 매년 평균 300~400억원의 양여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했으나, 2012년 이후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가용할 예산이 줄어들어 순수 지방비로 매년 평균 830억원을 투입했다.

도는 지방도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계속사업 지구는 구간별로 조기에 완공하고, 대규모 신규공사 발주는 지양하고, 공사 중 보상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선 보상 후 착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실적 】

(단위 : km, 억원)

연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장(총연장)	
2015	21	12.52(101.1)	700
2016	22	11.22(115.2)	800
2017	27	11.6(112.8)	930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도로시설팀장 정윤수, 담당자 박성우

3-2. 철도망 구축

가. 철도망 구축 계획

전남도에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철도망 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

- ▶ 노 선 : 광주송정 ~ 나주 ~ 무안국제공항 ~ 목포('15~'25)
- ▶ 사업량/사업비 : L = 77.6km / 총 2조 4,731억원

② 남해안철도(보성~목포)건설

- ▶ 노 선 : 보성 ~ 장흥 ~ 강진 ~ 해남 ~ 목포('02~'20)
- ▶ 사업량/사업비 : L = 82.5km / 총 1조 3,886억원

③ 경전선·남해안철도 전철화사업 추진

- ▶ 경전선(광주송정 ~ 순천) : 116.5km 2조 304억원
- ▶ 경전선(광양 ~ 진주) : 57.0km 1,524억원
- ▶ 남해안철도(목포 ~ 보성) : 82.5km 1,702억원

④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망 구축

- ▶ 서울 ~ 제주 간 고속철도(167km, 16조 8,000억원)
 - 목포 ~ 해남 ~ 보길도 ~ 추자도 ~ 제주도
- ▶ 전라선(익산 ~ 여수) 고속철도(180.3km, 5조 7,700억원)
 - 전북 익산 ~ 전주 ~ 남원 ~ 곡성 ~ 구례 ~ 순천 ~ 여수
- ▶ 서해안(새만금 ~ 목포) 철도(137.4km, 2조 3,056억원)
 - 새만금 ~ 고창 ~ 영광 ~ 함평 ~ 목포

나.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 건설

전남도는 오송~목포간 호남고속철도(259.9km)를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통 및 생활축의 양대 기간망으로 형성하기 위해 지난 199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했으며, 2004년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해 2005년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했고,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I 단계 구간(오송~광주송정)은 2009년 12월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했고, II 단계 구간(광주송정~목포)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이 2012년 8월 변경 고시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2014년 9월 나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기존선로 개량방안을 수년째 검토해, 2016년 8월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7월 15일, 부처간 이견이 없는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우선 추진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지속 논의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이에 광주송정~고막원 구간은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말 착공해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다.

고막원~목포 구간은 2017년 3월 28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정부안의 통과와 ‘II 단계 사업 조기 완공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마침내 2017년 11월 30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도는 2018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계획된 사업 기간보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건설

전남도는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성~목포간 남해안철도 건설을 1998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했다.

남해안철도 건설사업은 2000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이 완료되고 경제성(B/C 1.04)이 인정되어 2003년 12월 2개 공구 17.6km가 턴키공사로 착공했으나, 2007년 국토교통부의 준공사업 우선 추진방침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

도는 2009년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을 재조사해 당초 복선전제 단선에서 단선으로 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이후 도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끝에 8년이 지나서야 중단된 2개 공구의 공사를 2015년 2월 재개했으며, 나머지 5개 공구도 2015년 11월 착공했다.

도는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단선철도를 단선전철로 변경하는 전철화사업을 반영했으며, 철도사업과 병행해 전철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2018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철화 사업까지 준공되면 목포~부산간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돼 남해안 권역의 동반 성장 및 동북아경제권을 연결하는 신성장동력이 되어 본격적인 남해안시대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라.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

전남도는 2007년 7월 기상이변에 따른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

고 새로운 국가발전축 형성을 위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추진 사업을 계획했고, 정부에서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성(B/C 0.78)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상이변에 의한 제주공항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부각했다. 전남도는 2014년 7월과 2016년 2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도는 2016년 5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한국물류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등 공동명의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2016. 8.~2017. 12.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국민과 제주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토론회,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철도공항팀장 김동진, 담당자 형남준

3-3. 무안·여수공항 활성화 및 흑산공항 건설

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도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고, 중국·일본·동남아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등 서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공항으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운항 노선 확대,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취항을 시작한 무안국제공항은 개항 초기 15천명이던 이용객이 최근 중국 북경, 상해 국제선 2개 노선과 제주 국내선 1개의 정기 노선, 25개의 부정기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6년에는 이용객 322천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2017년에 사드 배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고 특히 공항 접근 시간이 전국 평균 52.7분인 것과 비교해 무안국제공항은 88분이 걸리는 등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필요성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7년 11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확정함으로써 공항 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도는 항공노선 다변화와 무안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한 소형항공사를 유치할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18년 3월부터는 일본의 기타큐슈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세부의 부정기 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전환했고, 2017년 5월 '사드' 여파로 중단했던 중국 '상해' 노선도 운항을 재개했으며, 해외 유명 관광지와의 연계한 부정기 운항 노선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찾고 있다.

또한, 도는 광주시, 목포시, 무안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증설하고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연장과 항공수

송 능력 확보를 위한 주기장 확장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도는 광주공항 이전, 흑산공항 개항, 호남고속철도를 개통하면 이와 연계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현황 】

(단위 : 편, 천명)

구분		계	'07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무안국제	운항	11,589	224	875	923	1,237	1,499	2,355	2,330	2,146
공 항	여객	1,445	15	91	96	133	178	312	322	298

나. 여수공항 활성화

전남도는 1972년 여수·순창·광양지역에서 수도권과 제주노선 항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여수공항을 개항했다.

도는 1971년 5월 활주로 및 계류장을 완성했고 1972년 여수-서울 간 정기 노선이 처음 취항했으나 활주로 길이가 짧고 좁아 (L=1,550m, B=30m) 항공기의 이·착륙이 까다로웠고 기상 변화에 따라 결항이 많아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공사를 완료했다.

여수공항은 보강공사 이후 이용객이 631천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이용객 증가 추세를 이어왔으나, 2011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대비해 여수-서울 간 KTX가 개통되면서, 2013년 공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도는 2014년 항공사 재정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운항손실금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2016년 12

월에는 여수·순천·광양시와 한국항공공사 여수지사, 아시아나항공과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상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수·순천·광양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해 공항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저가항공사 유치를 통해 여수공항을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여수공항 이용객 현황 】

(단위 : 편, 천명)

구 분		'07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여수공항	운항	6,120	5,803	6,015	5,836	5,667	5,476	4,813	5,046
	여객	656	627	631	475	434	413	503	593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철도공항팀장 김동진, 담당자 박장철

다. 흑산공항 건설 및 개항 대응

전남도는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와 관광객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사업비 1천 833억원을 투입해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3천㎡ 부지에 활주로 1,200m를 포함한 각종 항공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50인승 이하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3년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높은 경제성(B/C 4.38)이 인정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12월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 시 자연환경 훼손, 철새의 이동 경로 방해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는 철새 보호 대책과 관계부처 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조류충돌 가능성 및 공항입지 대안 검토,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유지하고 계획안 재보완을 요구했다.

2018년 2월 국토교통부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재보완 자료를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다. 2018년 상반기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018년 10월 실시계획 인가, 11월 공사를 착수해 2021년 개항할 예정이다.

한편 도와 신안군은 2016년 3월 광주전남연구원에 ‘흑산공항 개항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8대 분야 120과제를 발굴했고 흑산공항 착공과 연계하여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흑산공항 건설로 중국 등 불법 조업선박 감시 및 해양 영토수호와 더불어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정책기획관 주순선, 정책개발팀장 손명도, 담당자 나은석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철도공항팀장 김동진, 담당자 박장철

3-4.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 실현

가.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전남도는 201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100원 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00원 택시사업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고 100원 이외의 차액은 지자체가 택시회사에 보전해 주는 제도다.

도는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 제고를 위해 오지마을별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시회사, 이용자, 이용권 배부 방법 결정 등 운영에 참여시키고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운영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오지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플 때 병원가거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장보러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동시 비싼 택시요금을 주고 이동해야 했다.

도는 100원 택시 사업을 통해 오지마을 주민이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통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100원 택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높게 평가 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우수사례 공모에서 ‘사회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민배려시책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2018년에 중앙정부에서 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공공형 택시,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모범사례가 됐다.

【 100원 택시 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소요사업비			만족률
	시군	대상지역(마을)	이용자수	이용횟수	계	도비	시군비	
2014	2	73	1,010	5,049	69	18	51	
2015	14	362	11,076	389,963	1,863	625	1,238	81.2%
2016	19	645	19,891	848,672	2,919	858	2,061	
2017	21	741	21,622	1,039,302	4,306	1,050	3,256	82.9%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대중교통팀장 서회정, 담당자 노향미

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전남도는 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현재 위치, 운행정보, 도착 예정시간을 버스정류장 안내기,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토교통부 광역 BIS 구축 공모 사업에 5개 사업(목포~영암~무안~신안 구간 등)이 선정되어, 국비 1,868백만원을 지원받는 등 총 6,07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 운행노선 409km에 BIS센터를 구축하고, 정류장 안내기(BIT, 305식), 차량단말기(OBE, 173식)를 설치했다.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고흥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됐고, 사업비 243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BIS 구축사업 연도별 구축 현황 】

구축년도	구축구간	연장(km)	사업비(백만원)
2015	목포~무안~영암~신안	109	1,334
	광주~함평	68	481
2016	여수~순천~광양~보성	105	2,650
	강진,영광	80	672
2017	목포~무안	47	935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교통기획팀장 김성훈, 담당자 조문형

다. 교통안전문화 개선 추진

전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 8.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18.7명이며, 보행자 위반, 안전 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망자는 316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 계층 배려 중심 등의 교통안전문화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1,647개소 583억원, 횡단보도 및 보행로 갯길 정비사업 122개소 121억원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며, 유관 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다.

도는 전남교통연수원을 활용해 운수종사자·어린이·노인 등 4만6천명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전남 교통안전 토론회, 범도민 전진대회, 각종 세미나를 통한 홍보와 TV·라디오 언론매체를 활용한 기획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강화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터미널,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교통관리팀장 김병권, 담당자 최성근

3-5. 교통인프라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

가.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개인 승용차 보급이 확대되고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중교통의 수요는 감소 추세인 반면,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버스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버스운송사업체에 손실금지원액을 2015년 278억원, 2016년 267억원, 2017년 289억원 등 일부 보전해 주고 있으나 갈수록 재정적 부담이 커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2015년부터 버스 재정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Bus Cost & analysis System)」을 구축했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매월 운송수입, 차량비, 인건비 등을 경영상황을 전자신고하고, 도는 전자신고 자료를 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배분했다.

또한, 도는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2015년부터 매년 38대 564백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까지 저상버스 218대(도내 시내버스 운행대수 681대의 32%) 의무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82대의 도입 비용을 지원했다.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2015년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원해 22개 시·군 총 114대(2017년 12월 말 기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 연도별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내용					
	2015		2016		2017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시외버스 재정지원	6개업체	9,319	6개업체	8,772	6개업체	9,700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5개업체	18,504	45개업체	17,988	45개업체	19,264
오지·도서공영버스	38대	564	38대	564	38대	564
저상버스 도입보조	10대	763	20대	1,464	5대	346
장애인콜택시 도입보조	14대	420	22대	660	16대	480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교통기획팀장 김성훈, 담당자 조문형

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전남도는 2009년부터 화물운송사업 활성화와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에 노출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주차공간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차고지 확보에 대한 비용부담을 덜어 주고, 도심 내 주정차 공간확보로 야간 불법주차에 따른 주역주민들의 사고위험 노출 및 도시미관의 저해와 소음공해 등의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12년 나주(341대), 2016년 구례(32대), 목포(600대), 2017년 장성(80대), 2018년 광양(215대), 영광(306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0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m², 대)

시군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부지면적	주차대수	이용율	비고
목포시	'09. 6월	'11. 1월	1,995	4,115	77	100%	남해
순천시	'08. 6월	'12. 1월	19,740	41,956	341	100%	서면
강진군	'07. 1월	'12. 6월	11,000	146,975	2,000	100%	
여수시	'12.10월	'14. 1월	25,152	46,932	399	95%	휴게소
광양시	'14.11월	'16. 4월	16,368	33,058	215	80%	옥곡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 현황 】

(단위 : 백만원, m², 대)

시군	사업시행	준공예정	사업비	부지면적	주차대수	이용율	비고
나주시	'12년	'19년	15,000	49,038	341	-	
구례군	'16년	'18년	1,900	5,454	52	-	
목포시	'16년	'19년	36,000	91,510	600	-	대양
장성군	'17년	'18년	1,200	10,206	80	-	
광양시	'18년	'20년	16,368	33,058	215	-	초남
영광군	'18년	'20년	8,000	47,698	306	-	

추진부서 ○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교통기획팀장 김성훈, 담당자 김병훈

다.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

1) 지방도 유지관리

전남도는 1992년부터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형이 좋지 않은 급커브 도로나 도로구조 기준에 미달한 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해 지방도 유지관리를 했다.

도는 2017년까지 지방도 54개 노선 2,898km와 교량 451개교 및 터

널 8개소에 대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차로 개선, 설해대책 수립,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3,183억원을 투입했다.

도는 2018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9개 분야에 272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형개량 등 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위임국도 유지관리

전남도는 2009년부터 도내 국도의 30%인 9개 노선 21개 구간 600 km와 교량 109개교, 터널 7개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했다.

도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위험도로 개선, 병목지점 개선,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도로유지 보수 등 총 1,847억원을 투입해 유지·보수했다.

도는 2018년에 국도 위험도로 개선 등 7개 분야에 382억원을 투입할 것이며, 도로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율, 보수팀장 정문호, 담당자 문정오, 김형오
포장팀장 고 탁, 담당자 조재식, 김명석
교량팀장 조 준, 담당자 박윤석, 강문수

라. 마을 앞 보행로 및 갓길 정비사업

전남도는 2016년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도 인접 농경지와 마을 통과 구간의 보행로, 갓길을 정비했다.

도는 2016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5개년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235개소 144km, 총사업비 926억원)을 수립했다.

도는 2016년과 2017년에 마을 앞 보행로 115개소와 갓길 120개소에 150억원을 투입해 정비했고, 2018년에는 19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울, 보수팀장 정문호, 담당자 조장근
포장팀장 고 탁, 담당자 조재식

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전남도는 관리하는 지방도 내 교량 중 지진에 취약한 교량을 우선 순위를 정해 내진성능을 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강대상 교량은 총 281개소로 2017년에 32억원을 투입해 9개소를 보강했다.

도는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이용 빈도가 높은 교량, 길이 100m 이상의 장대교량부터 단계적으로 성능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울, 교량팀장 조준, 담당자 박윤석, 강문수, 오대은

바.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전남도는 도로 포장면 파손 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했다. 고정검문소(남평) 1개소와 이동단속반 2개소를 운영하고, 과적단속반은 3개 반 13명으로 운영한다.

도는 분기마다 민·관 합동으로 과적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과적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했다.

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총 154,670대를 검차해 234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16,211천원을 부과했다.

【 연도별 과적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

(단위 : 건/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검차/적발	7,870/63	55,302/73	91,498/98
과태료 부과	31,040	38,441	46,730

추진부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율, 장비팀장 전상원, 담당자 박성욱

사.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신설·운영

전남도는 동부권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 위치한 위임국도와 지방도의 도로 유지보수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를 2018년 1월에 신설했다.

도는 도비 31억원을 투입해 동부지소 사무동, 창고동·차고동을 건립했고, 2팀 13명(일반직 10, 무기계약직 3)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동부지소는 일반국도 7개소, 국가지원지방도 4개소, 지방도 15개소 등 총 26개 노선 957km와 교량 183개소, 터널 2개소를 유지·관리한다.

추진부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병율, 동부지소장 김영찬, 담당자 김경훈

4. 열린 토지행정 구현

4-1. 정확한 지적관리로 도민 재산권 보호

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는 개별공시지가 불균형으로 인한 과세형평의 논란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 시·군, 읍면동리 간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대한 지가 균형 유지를 위해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조성된 택지나 공장 용지 등은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거래 가격과 일치시켰다.

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와 도로·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조사했고,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토지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도민의 요구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현황 】

연도	조사 필지수(필)	지가 총액(억원)	평균 지가(㎡/원)
2014	4,332,707	870,252	7,741
2015	4,411,143	919,440	8,155
2016	4,494,918	975,722	8,621
2017	4,659,860	1,046,859	9,139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토지관리팀장 유영수, 담당자 김영국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

전남도는 기업 도시, 특성화 산단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했다.

도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허가심사 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실수요자 거래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하고, 투기성 거래는 불허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했다. 아울러 토지의 위장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또한, 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했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도는 2017년 말 6개 시·군, 12개 지역, 14.81km²(도 면적의 0.1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했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

지 역		면 적 (km ²)	지정 기간	지정 사유	비 고 (지정자)
합 계		21.28	도 전체 면적 (12,319km ²)의 0.12%	6개 시군, 12개 지역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0.2	2017.12.3.~ 2020.12.2.(3년)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도지사
여수시	만흥동 일원	0.27	2014.1.10.~ 2019.1.9.(5년)	만흥동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개발	도지사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609 (간여암)	1,905 (㎡)	2014.12.26.~ 해제시 까지	영해기점 무인도서	국토부 장 관
여수시	봉전면 일원	0.59	2015.10.1.~ 2020.9.30.(5년)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	도지사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1.12	2015.12.24.~ 2020.12.23.(5년)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지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	0.2	2017.10.1.~ 2022.9.30.(5년)	돌산 상포지구	도지사
순천시	연향동 및 해룡면 일원	0.65	2016.5.12.~ 2021.5.11.(5년)	순천만랜드 조성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대리	1.07	2014.9.5.~ 2017.9.4.(3년)	선월하이파크	광양경 제청장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7.78	2014.10.30.~ 2018.10.29.(4년)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15	2017.6.18.~ 2020.6.17.(3년)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98	2017.6.18.~ 2020.6.17.(3년)	도양일반산단 조성	도지사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3 (소국홀도)	4,760 (㎡)	2014.12.26.~ 해제시 까지	영해기점 무인도서	국토부 장 관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토지관리팀장 유영수, 담당자 이용만

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 개발업은 토지를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등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됐다. 이에 전라남도는 부동산 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기했다.

【 등록대상 규모 】

(단위: 건)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 3천㎡ (연간5천㎡)이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5천㎡(연간1만㎡) 이상

【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

(2017.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신규	폐업, 이전, 취소
업체수	51	93	42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토지관리팀장 유영수, 담당자 박만호

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전남도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경계로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마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 가량이(전남도 14%)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정확한 지적도 구축을 위해 가로·세로·높이 1mm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량하는 첨단 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여, 3D 입체 지적정보를 구현하는 스마트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이다.

도는 2030년도까지 569만 필지에 대해 국비 1천8백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국비) 7,126백만원으로 77개 지구, 44,471필지를 추진 완료했다. 2017년에는 22개 사업지구 14,299필지, 사업비(국비) 2,123백만원을 투입해 현재 경계를 확정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형화되고,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 사업추진 현황 】

(단위: 필지/천㎡/백만원)

연도	사업 지구	사업량		사업비 (국비)
		필 지	면 적	
합계	99개 지구	58,770	61,801	9,249
2012	5개 시군 5개 지구	2,145	2,795	327
2013	14개 시군 26개 지구	12,594	17,587	2,184
2014	6개 시군 7개 지구	5,293	4,659	790
2015	13개 시군 15개 지구	9,703	9,218	1,605
2016	18개 시군 24개 지구	14,736	14,682	2,220
2017	19개 시군 22개 지구	14,299	12,860	2,123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지적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진형

마. 조상 땅 찾기 및 각종 토지정보 자료 무상 제공

전남도는 2001년부터 조상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알지 못해 상속 받지 못한 경우의 해결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지적 전산망을 활용하여 자손으로부터 신청받은 조상 땅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2017년까지 21,064건, 134,711필지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지적 전산망은 도내의 토지 12,335km², 5,764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한 토지변동과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등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해 최신 자료를 제공했다.

도는 2015년 7월부터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 재산조

회가 가능하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자료, 사법기관의 수사업무 지원, 행정기관의 세무행정 지원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여러 공공기관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이용에 크게 기여했다.

【 토지정보 제공현황 】

(단위: 필지/천㎡)

연도	조상 땅 찾기			개별법에 의한 자료제공		
	제공인원	제공필지	면적	제공인원	제공필지	면적
합계	15,366	77,295	95,263	151,932	63,071,149	75,367,104
2014	1,849	9,844	12,175	32,300	59,633,830	71,170,529
2015	3,453	18,645	24,287	43,522	846,227	986,348
2016	4,769	23,861	27,756	36,035	1,652,783	2,227,931
2017	5,295	24,945	31,045	40,075	938,309	982,296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지적팀장 김옥남, 담당자 김정윤

바. 측량업 등록 관리

전남도는 총 215개의 측량업체가 등록되어 관리한다.

측량업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한다.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해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1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

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한다.

공공측량업의 업무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

(2017.12.31.기준)

구 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비 고
업체수	215	84	116	15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지적팀장 김옥남, 담당자 문무상

4.2.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가. 공간정보화 사업

공간정보는 실제 사물의 위치정보에 속성정보를 덧입힌 융합·복합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실생활 속에 또 다른 가상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공간정보화 사업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들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 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항공영상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2004년~2006년)했다.

이를 통해 도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2006년부터 도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간정보참여마당시스템과 행정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자유치지원시스템, 투자유치브리핑시스템, 섬관리 및 비교우위지원시스템, 공간정보분석시스템를 포함한 중앙 연계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국토공간지원체계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명	항공영상공 간정보	공간정보 참여마당	투자유치 지원· 브리핑	섬관리· 비교위	공간정보 분석	중앙연계 시스템
구축년도	2004 ~ 2006	2006	2008 ~ 2009	2009 ~ 2010	2015 ~ 2016	2006 ~ 2009
활용 및 주요내용	· 항공영상 과 지적도 중첩사용 *내부행정	· 관광명소, 여행지 등 방문후기 *도민이용	· 도내 투자 개발지 3D 분석 *내부행정	· 도내 섬 현황 및 비교자원 *내부행정	· 공공, 민 간빅데이 터분석 *내부행정	· 각종 토지 정보 및 공 간정보제공 *내부행정

또한, 도는 2015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드론(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해 택지 등 주요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 효율 증대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드론(무인비행장치)촬영 수요는 매년 증가해 2015년 24개소 25km², 2016년 50개소 57.5km², 2017년 41개소 74.1km²를 촬영 제공 및 서비스를 했고, 2018년에는 드론 촬영 수요조사 결과 228건이 신청되어 그 중 중요도 및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73건을 촬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 산림, 해양,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흩어진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누구나 찾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는 각 시·군별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구축되는 대량의 자료, 공간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석도구나 분류체계로 관리될 수 없고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특정 공간위치상 사람들의 평균 소득 수준, 수돗물이나 전기사용량, 소비성향 등을 토대로 유망한 창업업종, 필요한 생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창출할 것이다.

공간정보는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드론,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앞으로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공간정보팀장 김승채, 담당자 심재홍

나. 전남도 공간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

빅데이터란 3V(Volum, Velocity, Variety), 즉 ‘크고 빠르고 다양하다’라는 뜻이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되고 있는 ‘공공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분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남도는 2015년에 『전남도 공간정보분석시스템 구축·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에 산림정보, 섬 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 빅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결합해 2016년도 하반기에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간정보분석시스템에는 기구축한 항공영상 및 지적데이터는 물론 주민 등록, 인구 통계, 의료, 학교, 도서관 등 사회간접정보와 전남도의 비교우위 자원인 숲, 섬, 관광지 등 민선6기 전략 사업 각종 정보 등 행정 정보가 포함됐고, 특히 SKT통신데이터와 카드 매출 정보 등 민간 정보가 포함되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정확한 행정 수요 예측 및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주요 활용 분야는 가고 싶은 섬, 숲속의 전남, 비교 우위자원, 남도 문예 르네상스 등 전남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 GIS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여 도 실과소원 및 시·군의 다양한 행정 자료를 한 곳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어 부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현재는 구축 초기 단계로 토지행정, 유동인구 분석, 관광객 분석 등 주로 행정에 필요한 22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도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실시해 상권 분석, 주거 환경 분석, 사회 간접시설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짐을 인식하고 행정 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민간 데이터와 맵핑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생산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맵핑을 통해 새로운 시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전남도 공간정보분석시스템」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공간정보팀장 김승채, 담당자 심재홍

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정부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간정보 DB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997년 여수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3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개 시·군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을 현장 조사·탐사하고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했다.

도는 앞으로 구례군, 장성군 등 10개 군 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2022년까지 361억원을 투입하고 12,110km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을 완료하면 도로상의 시설물과 상·하수도 등 7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 매설물 설치 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하수도·통신·전기·가스·난방·송유의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해 조치함으로써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공동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없다면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공간정보팀장 김승채, 담당자 심재홍

라.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를 표기해 사용하는 주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10년대 일제가 도입한 지번 주소체계를 100여 년간 주소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번 주소체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1개의 지번에 많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번만으로는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부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은 화재·범죄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우편배달·위치 찾기 등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사용은 2001년 목포시, 광양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도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도로명 확정, 도로명주소 부여, 안내시설물 설치, 일제 고시 등 사전 준비를 하면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전면 사용하면서 도민의 주소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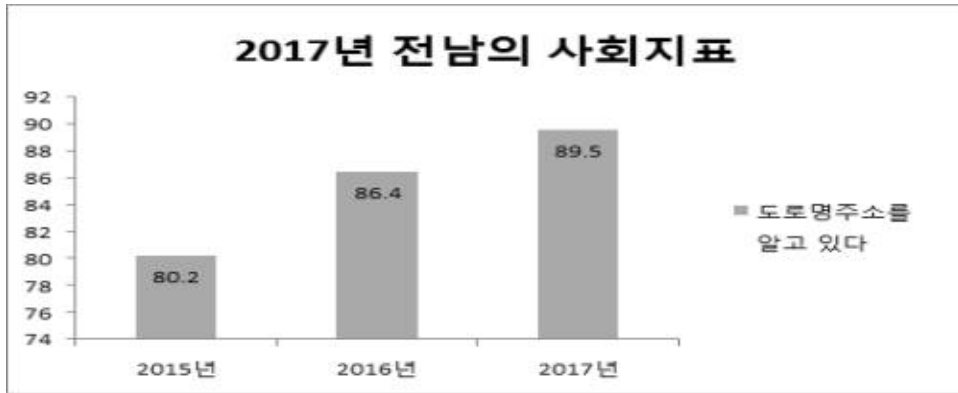
우선, 도는 도로명주소 찾기 편의를 위해 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하여 13천 개 도로구간에 도로명판 62천 개를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548천 개, 도 관리 광역도로 기초번호판 4천 개를 설치했다.

도·시군간 합동 방문 홍보와(전통 시장, 축제장, 교육 기관, 택배 업체 등), 동영상 홍보(버스정보단말기, LCD 전광판 등) 등을 매년 1,500개소 이상 추진했다. 도로명주소를 어려워하는 도민들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부를 작성·배포했고, 전입 세대 도로명주소 문자 메시지 안내 74천 건, 도로명 기본도 현행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15년에는 도로명주소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특히 도는 2015년 5월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를 운영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생활 밀착형 홍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홍보 사례를 공유하며, 도민 불편 사항도 청취·개선했다.

그결과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는 도민의 비율은 2017년 89.5%로 2015년 80.2% 대비 9.3%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15~69세까지는 90%이상이나 70세 이상은 74.4%에 머물러 있어,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회관, 노인 대학교 방문 등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공간정보팀장 김승채, 담당자 박원선

마.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

전남도는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위치 찾기 선진화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설치,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추진했다.

상세주소부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세주소부여는 우편물 수령·반송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물 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도는 2014년부터 3천 건을 부여해 정부합동평가(상세주소부여)에서 3년 연속(2015년, 2016년, 2017년) '가'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고지서 분실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에 상세주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건물이 없는 산악·하천·도서 등 지역에서 위치 찾기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점번호제도와 기초번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 지점의 위치를 10자리 수로 구성한 번호이다.

도는 2013년에 국가지점번호 3,835점을 전국 동시 고시했다. 2017

년까지 도립공원·도서 등 사고 취약지역에서 현장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1,345점을 설치했고, 소방본부 등과 자료를 공유해 사고신고·구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도민 안전과 밀접한 국가지점번호판을 22개 시·군에 확대 설치하여 건물번호가 없는 지역의 위치 찾기 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이다. 도는 건물이 없어 위치 식별이 곤란한 도로변에 현장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다.

도는 도로변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기초번호판을 16천 개를 설치했다. 도민의 안전과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2014년부터는 경찰, 학군, 우편 등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던 구역을 일원화하여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2,900개를 설정하여 전국 고시했다. 2015년부터는 우체국에서 우편번호로 활용하고 있다.

도는 신규 등록이나 택지 개발 등의 변동 사유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도민의 생활에 도로명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기초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토지관리과장 박병춘, 공간정보팀장 김승채, 담당자 신혜윤